**롬0725 Note**

**◆도우미 : 육신 안에서, 성령 안에서 (갈0516 등)**

갈0429.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좇아 태어난 저가, 성령을 좇아 태어난 그를 핍박하였었듯이, 형편이 지금 바로 그와 같으니라.

Ω갈0516.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, 성령 안에서 걸으라,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(에피뒤미아:동경,특히 금지된 것의 정욕,욕망,갈망)을 충족시키지(텔레오:완전히 하다,완수하다,결론짓다,청산하다,실행하다,끝마치다,성취하다,건너다,지불하다)않느니라.

갈0517. 이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갈망하고(에피뒤메오: 마음을 두다,갈망하다,탐하다,바라다,기꺼이 ~하다), 또 성령은 육신을 거슬러 갈망함이라. 그리고 이들은 서로간에 대적하느니라(안티케이마이:반대하다,대적하다), 그래서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.

Ω갈0524.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인 자들은 감정(파데마: 수행하는 어떤 일,고난,고통,감정 또는 영향,사랑,행위,고생)들과 정욕(에피뒤미아:동경,특히 금지된 것의 정욕,욕망,갈망)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

Ω롬0612. 그러므로 너희가 몸의 정욕[에피뒤미아:(특히 금지된 것의)동경,정욕,욕망,갈망]들 안에서 죄에게 청종하도록, 죄로 하여금 너희의 죽을 수 밖에 없는 몸 안에서 다스리게[바실류오: 바실류스(주권자,왕)에서 유래,통치하다,다스리다,왕노릇하다] 허용하지 말라,

Ω롬0801. 그러므로 육신을 좇아 걷지 않고 성령을 좇아 걷는,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어떤 유죄판결[카타크리마:카타크리노(불리한 판단을 하다,선고하다,정죄하다,저주하다)에서 유래,불리한 판결,정죄]도 없느니라,

롬0804. 이는 법규의 '법적 깨끗함[디카이오마:공정한 행위,의로운 행위,법령이나 결정,포고,심판,공의,의(義)]'이, 육신을 좇아 걷지 않고 성령을 좇아 걷는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(플레로오:가득 차게 하다,꽉 채우다,만족하다,직무를 수행하다,임무를 마치다,예언을 확증하다,성취하다,완성하다,만기가 되다,공급하다) 하려 하심이라.

Ω롬0805. 이는 육신을 좇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나, 성령을 좇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에 주의를 기울임이라.

롬0806. 이는 육신적으로 기우는[프로네마:(심적인)경향이나 의도,포부,생각,열망] 것은 사망이나, 영적으로 기우는 것은 생명과 '화친으로 하나로 됨' [에이레네:에이로(결합하다,묶다)에서 유래,히브리어 솰롬(안녕,평안,번창)에 상응,평화,번영,평강,하나가 됨,고요,안식,다시 하나가 되다/호크마 주석: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종종 뜻한다]이라.

롬0807. 이는 육신적으로 기울어짐[프로네마:(심적인)경향이나 의도,포부,생각,열망]은 하나님을 거슬러 반목(反目)함이니, 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법규에 복종하지도, 또한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음이라.

롬0808. 그렇다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.

Ω벧전0211. 사랑하는 사랑 받는 자들아, 내가 나그네들(파로이코스: 손님,낯선 이. 외국인,체재,이방인)과 순례자들(파레피데모스:거주하는 외국인,이방인,나그네,순례자)과 같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,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의 품행(아나스트로페:품행,처신,행위,대화)을 정직하게 가져,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적 정욕들을 그만두라(아페코마이:막다,삼가다,그만두다).

Ω벧전0401.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 안에서 고난을 겪으셨던 까닭에, 마찬가지로 같은 정신으로 너희 자신들을 무장시키라, 이는 육신 안에서 고난을 겼었던 그는 죄(빗나감)로부터 떠났음이니(파우오:휴식,멈추다,정지하다,떠나다,단념하다,그만두다,끝까지 오다),